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R&D사업 최종 선정

자치경찰 및 과학치안 역량 강화 기반 마련 첫걸음 내디뎠다

기사입력시간 : 2023/04/30 [16:25:00]

장국현 기자 kspa@kspnews.com

데이터기반 생활안전 취약계층 대상 위험시간대 최적 안전안심경로 제공 서비스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R&D사업 최종 선정

[케이에스피뉴스=장국현 기자 kspa@kspnews.com]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연구기관: 대구테크노파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연구기관: 제주테크노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찰청·(재)과학치안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3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R&D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R&D 사업’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각 지역의 치안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과학기술을 치안분야에 도입하여 획기적인 치안 역량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지난 3월 18개 자치경찰위원회 대상으로 경찰청(과학치안진흥센터)에서 첫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공모에 대구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 제출해 선정된 것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R&D 사업 선정으로 2027년까지 4년 9개월간 최대 32.5억 원(국비23.75 시비4.5 민자4.25)을 지원받아 지역 특성 및 치안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R&D사업 추진으로 타 시·도보다 앞선 자치경찰과 과학치안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연구 및 실증을 위해 대구경찰청과 협업해 지역거점(Spoke Lab) 구축을 통한 치안수요 발굴 및 거버넌스 소통플랫폼 운영, 주민체감형 생활안전 솔루션 실증 및 확산을 통한 지역 성공사례 발굴, 국내 최초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을 통한 과학치안 역할증대를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연구·실증하기 위해 ‘드론, AI, 5G 기술’, ‘AI 범죄예측 시스템’, ‘지능형 CCTV 통합관제’ 등을 비롯한 치안 기술을 개발하고, 치안현장 실증을 거쳐 이를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한편 대구-제주에서 개발한 스마트치안 기술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용숙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R&D사업 선정을 계기로 첨단 치안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과학치안 선도도시로서 대구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대구 시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신(新) 산업기술 중 하나인 드론과 AI 기술을 과학치안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산업 활성화 및 연구인력과 기업매출 신장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마트치안 기술 선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